



수아레스, MLS 인터 마이애미와 1년 재계약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MLS) 인터 마이애미의 베데랑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38)가 2026년 시즌까지 유효한 1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가운데)이 1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2025 FIFA 인터콘티넨털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강인, 부상에 울고 우승에 웃다

인터콘티넨털컵 결승 선발 출전

수비수와 부딪혀 허벅지 통증 교체
PSG, 플라멩구 꺾고 '6관왕' 위업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하는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인터콘티넨털컵 결승에서 부상으로 일찍 물러났으나 팀 우승에 활짝 웃었다.

이강인은 1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 플라멩구와의 2025 FIFA 인터콘티넨털컵 결승에서 선발로 출전해 전반 35분 햄스트링 통증을 느껴 세니 마울루와 교체됐다.

PSG는 정규시간 1-1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2-1로 이겨 우승했다.

이로써 PSG는 한 해에만 여섯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한 해에 6관왕을 달성한 것은 2009년 바르셀로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다만 AP, 로이터통신 등 일부 외신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월에 열린 2020 FIFA 클럽 월드컵 대회 우승을 포함해 바이에른 뮌헨이 2020년 6관왕을 했다며 PSG의 올해 6관왕이 역대 3번째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24-2025시즌 리그1, 프랑스컵, 트로페 데 샹피옹을 제패한 PSG는 지난 6월 창단 첫 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했고 시즌 초반 UEFA 슈퍼컵도 거머쥐며 유럽의 왕좌를 공고히 했다.

인터콘티넨털컵은 여섯 개 대륙 클럽대항전 챔피언이 세계 최강 프로축구팀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대회다.

매년 열리다가 규모를 확 키우며 4년에 한번 개최되는 것으로 바뀐 클럽 월드컵의 빛자리를 메우고 있다. PSG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결승전에 직행했다.

플라멩구는 피라미드(이집트), 알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오클랜드 시티(뉴질랜드), 크루스 아슬(멕시코) 등 각 대륙 대표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으나 우승을 눈앞에 두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정규리그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최근 FC메스와의 경기에서는 시즌 3호 도움을 올리기도 한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도 다치기 전까지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지상 볼 경합 두 차례에 모두 성공하는 등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 31분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와 부딪히고 나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결국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떠났다.

PSG는 이강인이 교체된 지 3분 만에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원발 슛으로 선제 골을 터뜨렸다.

플라멩구는 후반 17분 조르지뉴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PSG는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등을 투입하며 추가 골을 노렸으나 결국 1-1로 우

열을 가리지 못했다.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PSG 비티냐와 누누 멘데스가 각각 1번과 3번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했고, 골키퍼 마트베이 사포노프는 플라멩구 1번 키커 니콜라스 데 라크루스를 제외한 네 차례 슈팅을 모두 막아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올 여름 영입된 주전 골키퍼 뤼카 슈발리에에게 밀려 공식전 네 경기 출전에 그쳤던 사포노프는 이날 신들린 선방을 펼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사포노프는 슈발리에가 11월 말 발목을 다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출전하지 못한 채 내내 벤치를 지켰다.

이날 슈발리에는 부상에서 충분히 회복한 상태였지만,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상승세의 사포노프를 그대로 선발로 기용했고, 그는 눈부신 선방으로 화답했다.

경기 후 동료들은 사포노프를 헹가래 치며 승리를 함께 기뻐했고, 이강인도 우승 세리머니에 참여해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손흥민 “EPL 떠난 이유는...”

토트넘 현정 다큐서 담담하게 밝혀 “다른 유니폼 입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레전드’ 손흥민이 팀을 떠나던 마지막 순간과 그 뒷얘기가 공개됐다.

토트넘은 18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흥민 헤딩 : 토트넘에서 쏘니의 마지막 날들을 들여다보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약 14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 영상에는 손흥민이 직접 출연해 이적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고,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모습과 최근 홈구장을 방문해 팬들과 재회한 장면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

카메라 앞에 앉은 손흥민은 담담한 말투로 “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겠다는 결정은 정말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계속 남는다면, 팀에도, 제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또한 “선택지는 많았지만, 다른 EPL 팀으로 이적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토

트넘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난 오직 토트넘을 위해서만 뛰고 싶었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에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날 심정을 털어놓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담겼다.

팀을 떠나는 당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아침에 동료들을 보니 모두 조용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마음이 안 좋았다”며 “그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나는 계속 이것이 현실임을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긴장되기보다는 슬프다”고 운을 뗀 손흥민은 “그래도 좋은 의미의 슬픔이다. 나는 이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여기서 쌓은 성과가 매우 자랑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설레고 행복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것이 바뀐 완전히 새로운 환경인데, 제가 딱 필요로 했던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영원히 토트넘의 선수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